광주형 일자리-현대차 투자 '벼랑 끝'

李 광주시장 "물거품 우려…노동계 동참 호소"

노동계 "4대 핵심의제 제자리…시민 우롱 안돼"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시·현대차 공동투자를 골자로 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시와 현대차는 빛그린국가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부지와 공장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금은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연봉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에 대한 현대차의 실질투자 실현을 민선 7기 초반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용섭 시장도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전제로 8월 중에는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소위 '찬바람 불기 전'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친문(친문재인) 주류 인사들의 구원 등판에도 불구, 투자협약은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힌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량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노조 측 반발과 자동차 시장 침체, 미국발 관세 폭탄 여기에 시의 '늑장 연구용역'까지 불거지면서 협약은 기약없이 미뤄지고만 있다.

여기에 콘트롤타워격인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불참해 '반쪽 출범'한 상태고, 투자비 분담과 임금 수준 등을 두고도 시와 노동계, 사측의 입장차가 적잖아 대타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현지시찰 차 유럽방문길에 오른 이 시장이 출국 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이다", "취임 후 80일이 다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깝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동계의 협조와 참여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위기감의 방증으로 읽힌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대한 진척이 없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 공개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이젠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7, 18일 양일간 산별, 주요 사업장별 노동계 의견을 취합한 다음 1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 협상 테이블에 아예 불참할 지,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할 지, 협상 과정의 숨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가감없이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 강경파 측에서는 협상 불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논의 구조에서 빠지기 보다는 시와 현대차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정열 한국노총 광주본부 부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다보니 대통령 눈치보며 이쁨받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포장하는 경향이 짙다"며 "이제라도 본래 취지에 걸맞게 4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차가 안 팔릴 경우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우선 예산 문제와 함께 고용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협상 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역대 광주시장 한 자리에

역대 광주시장들이 14일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시정 간담회를 갖고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윤장현, 강영기, 김동완, 최인기 전 시장, 이용섭 시장, 송언종, 박광태, 고재유, 강운태 전 시장.

'남해안 경관' 명소 국공유지 11곳 민간투자유치

"관광객 유입 시너지 효과"

정부가 남해안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남해안 오션뷰 명소' 인근 국공유지에서 전남 고흥 금의시비공원, 여수 남산공원, 광양 중동해양공원, 경남 남해 다랭이 마을, 통영 달아전망대, 거제 병대도 전망대 등 11곳의 투자유치 대상 부지를 발굴했다.

투자유치 유형은 미술관, 전시관, 공방, 체험시설 등 문화예술시설과 전망카페, 소규모 상업·숙박·테마시설 등 다양하다.

국토부는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의향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상세자료를 제공하거나 방문 설명을 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께 서울에서 투자 설명회도 연다.

이번 투자유치는 국토부가 남해안을 국제적 해안경관 명소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중인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 남해안 오션뷰 명소 20선을 선정한데 이어 내년부터 해안경관 명소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진 전망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안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에 투자를 유치해 경관 감상형 관광휴양·체험시설이 조성되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 꽃중년 비타민상회 운영 눈길

광주 동구가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사업 '꽃중년 비타민상회'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디자인단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는 서비스 디자이너,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등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새로운 정책개발 모델이다.

동구는 지난달 24일 '꽃중년 비타민상회'를 중장년 독거주민, 자원봉사자, 주민대표, 사회복지전문가, IOT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과제 선정과 활동로드맵을 설정해 본격적인 복지정책개발에 나섰다.

서구 상무2동, 쌍쌍일촌 페스티벌 성료

추석을 맞아 만남·화합·소통을 주제로 주민 모두가 함께하고 어울리는 "쌍쌍일촌 페스티벌"이 지난 15일 쌍학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상무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희만)에서 주최하고, 상무2동 쌍쌍일촌 주민협의체, 상무2동행정복지센터, 기아자동차, 광주문화재단 등 많은 지역단체 및 주민의 협조로 운영됐다.

행사는 남녀노소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음악축제로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쌍쌍장터, 가을운동회, 쌍쌍콩쿨대회 등 3부로 나눠 진행됐다.

남구 "민선 7기 공약 주민배심원단 모집"

광주 남구는 자치단체장의 공약 실천 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민선 7기 공약 주민배심원단'을 공개모집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 주민배심원단' 모집 인원은 50명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구 주민 가운데 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배심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 코너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거주지 주변 동주민센터나 남구청 8층 대외협력관 사무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북구,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

광주 북구가 취약계층 및 지역민들의 균등한 구강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강보건센터는 북구 보건소 3층에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 충분한 진료·교육 공간과 장애인 접근동선 편리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182.9㎡ 규모로 구강보건교육실, 구강진료실 등을 확대·설치한다.

또한 장애인 구강건강 토탈 케어, 주민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등 일반 주민은 물론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1차 구강진료, 교육 및 예방처치 등 분야별 맞춤형 보건사업과 치과 진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도산동 주민, 한울타리 탁구대회로 친목

15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 무등파크맨션 입주자대표회(회장 하석주)가 개최한 '도산동 한울타리 탁구대회'가 동 각계각층 주민이 선수와 응원단으로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도산동 주민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70% 이상. 하석주 회장은 이런 사정을 감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담장을 넘어 동 전체 주민이 화합하고, 아파트 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탁구 교류를 떠올린 하 회장은, 곧바로 지역사회와 함께 일사천리로 대회를 준비했다.

동의 한 탁구장에서 복식 토너먼트로 치러진 이날 대회에는, 22개 아파트 주민 팀, 지사협·통장단 등 8개 기관·사회단체 팀을 비롯한 각 팀 응원단이 참가해 동 축제에 버금가는 규모와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임형택 기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 미래창조 ·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 인 설 립 ■기 장 대 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 업 진 단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 량 >> 토 목 설 계 >> 도 시 계 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